

700년 만의 발견 - 신화적 담론 속의 여성 주체들 -길태숙·윤혜신·최선경, 『삼국유사와 여성』(이희, 2003. 8.)

김영희

1. 여성 주체 발견의 가능성과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격

남성은 오랜 세월 '여성-아님'이라는 배타적·부정적 인식의 전략에 기 반하여, 즉 여성을 대상화·타자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 해왔다.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에 의해 발견되거나 인식된 이미지로 재생 산되었다. 더구나 말하기, 쓰기 등의 헤게모니적 장치들이 남성에게 의해 독 점되면서 여성적 목소리는 은폐되거나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식 과 기록의 세계'에서 남성이 오래도록 절대적 우위의 권력을 유지해 왔기 에, 기록된 텍스트에서 여성 주체를 발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타자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작업 은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주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 해 필연적으로 타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자에 대한 배타적 인식 과 이미지 구성 없이 주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도, 자신의 이미지

를 구현할 수도 없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숭배' 라는 양극단의 태도는 대타적으로 구성된 남성적 정체성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여성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강화될수록 여성 주체의 발견이 가능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타자에 의존하는 남성 주체의 불완전함은 여성을 물신화, 타자화하는 텍스트에서 결코 균질적인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텍스트는 여러 헤게모니가 각축을 벌이는 전장(戰場)에 다름 아니기에 설사 한 사람의 작가에 의해 창작된 텍스트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더구나 남성 주체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하려 하면 할수록 여성의 이미지 구현에 매달리게 된다. 결국 남성 주체는 여성의 이미지에 고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주체에 의한 텍스트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수많은 균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균열들을 통해 여성적 목소리의 복원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여성 주체를 발견하고, 여성을 타자화하는 헤게모니적 전략을 폭로하는 여성주의 비평의 목표는 여성 주체의 글쓰기만이 아니라 남성 주체의 글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남성 주체인 '일연(一然)' 이 서술한 『삼국유사(三國遺事)』라는 텍스트에 대한 여성주의 비평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라는 텍스트는 매우 독특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삼국유사』는 일연 한 사람의 독자적인 창작물로 보기 어려우며, 비록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 기술된 텍스트이긴 하지만 구술 문화적 전통에 기반한 '적층'의 층위를 내포하고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서술이 삼국(三國)에서 구전되던 이야기에 기반한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최대한 구전의 전통에 충실한 서술 태도를 취하려 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연의 서술 태도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구전되는 이야기의 내용과 물리적 증거물을 확인할 정도로 엄밀한 것이었다.

『삼국유사』가 적층의 층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이 텍스트가 중층적인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텍스트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지평이 개입했음을 뜻하며 이러한 개입의 흔적이 텍스트 곳곳에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구나 『삼국유사』는 기록의 층위 또한 단일하지 않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기술하면서 여러 선행 텍스트를 참고하거나 전사했음을 밝히고 그 출전을 일일이 기록하였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구전의 단계뿐 아니라 기록의 단계에서도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였다.

중층적인 텍스트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삼국유사』는 개인 서술에 의한 어떤 텍스트보다도 더 많은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여성 주체를 발견하고 여성적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층적인 구조로 인해 『삼국유사』에 대한 해석은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시각적 다양성만큼이나 의미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더구나 『삼국유사』는 700년의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있다. 해석자가 존재하는 현재적 지평과 텍스트가 형성된 당대적 지평이 텍스트 해석에서 함께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차는 연구자에게 텍스트 형성 당대의 세계관과 시대상을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제공한다.

또한 『삼국유사』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다양한 성격을 지닌 텍스트이며 무엇보다 신화적 세계관에 기반한 텍스트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여성 주체를 발견하는 작업은 신화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 연구자는 신화적 해석과 여성주의적 해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과제 앞에 서게 된다. 『삼국유사』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은 이처럼 많은 가능성과 풀기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2. 『삼국유사』에서 여성 주체 발견하기

저자들은 서문에서 『삼국유사』가 '역사적으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여성에서부터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기층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고 다양한 고대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들의 연구가 '우리 나라 여성상의 원형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저자들이 천명한 대로 『삼국유사와 여성』은 텍스트를 살살이 뒤져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고 천착하겠다는 태도로 『삼국유사』 속에서 다양한 여성 주체들을 발견하고 있다. 이 책은 서사 문맥 내에서의 여성들의 '행위'와 '행위 결과'를 중심으로 『삼국유사』 안에서 발견되는 여성 주체들을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 역시 『삼국유사』에 숨어 있는 여성 주체들을 최대한 성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의 결과로 보인다. 때론 세 유형 사이에 겹치거나 어긋나는 등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분류의 체계성이나 일관성 등을 지적하기에 앞서 분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여성 주체들은 존재의 질적 변화를 이룬 여성들인데 대체로 존재 속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변한 여성들로, 크게 '개인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의 변화', '세속적 존재에서 종교적 존재로의 변화', '인간적 존재에서 신적 존재로의 변화'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내체로 입사의례를 상징하는 과정을 거쳐 존재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입사의례의 성공이 선천적인 자질·속성이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대사회적(對社會的) 과업을 이룬 여성들인데 크게 출산과, 통치 활동 등의 공적 업무를 완수한 여성들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입사의례가 사회적 존재로의 진입 및 사회적 행위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첫 번째 유형의 여성들에게서 사회적 과업의 완수가 암시되기도 하고 두 번째 유형의 여성들에게서 입사의례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저자들은 서사의 초점과 비중에 따라 두 유형을 구분해 놓고 있

다. 이는 입사의례와 사회적 성취가 각각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자료들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이 두 가지 주체의 의미를 좀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간으로 변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 다시 호랑이로 돌아간 신도징의 아내와 같은 경우 존재의 변화는 뚜렷하게 드러나나 사회적 과업의 성취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어린 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베푼 지소태후나 사도부인은 사회적 성취의 양상은 뚜렷하지만 입사의례의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형의 여성들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주거나 받으므로써 그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특히 이 유형에서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위기에서 구하거나 특정 인물의 성취를 돕는 여성들이 제시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와 희생, 현명한 판단 등을 통해 타인을 돕는 여성들이 제시된다.

이 유형에서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구하는 여성들의 경우 두 번째 유형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비단을 짜서 세상에 해와 달의 빛을 되돌린 세오녀나 가물 때 비를 내려주는 운제부인, 나라의 위기를 알려준 세 여산신 등은 모두 일정한 대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인물들이 출산과 통치 등의 사회적 활동의 과정에 비중을 두는 반면, 세 번째 유형의 인물들은 행위의 과정보다는 결과 및 효과에 그 의미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변별성을 드러낸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여성 주체들의 생생한 형상은 『삼국유사』라는 텍스트의 복잡성과 중층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독해로는 놓치기 쉬운 것들이다. 여성 주체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해석 기준에 따라 재배치됨으로써 이들 여성 인물의 형상은 비로소 독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여성적 목소리를 은폐시키는 남성적 시각에 사로잡혀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생생한 여성 인물들의 형상이 복원되기에 이른 것이다.

첫 번째 유형에서 존재의 변화를 이룩하는 여성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왕후되기'라는 신분적 변화를 이룩하는 알영, 허황옥, 모량부 상공의 딸, 문희, 선화공주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왕후되기'가 남성 배우

자에 의해 선택,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안에 내재한 선천적 자질과 혈통에 의해 이미 예정된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입사의례를 상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음으로써 그 존재의 변화를 이룬다.

알영은 용의 뱃속에서 나와 목욕을 통해 닭의 부리 같은 입술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며, 허황옥은 일종의 신혼을 거쳐 수로왕과 결합한다. 모량부 상공의 딸은 배설물의 거대함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또 김유신의 동생 문희는 예지력으로 선류몽을 사고 지인지감으로 김춘추를 알아봄으로써, 선화공주는 금을 가져 가고 금의 가치를 알려줌으로써 장차 새로운 질서의 구심이 될 인물과 결합한다. 이들이 거치는 변화의 과정은 모두 입사의례를 상징하고 있으며 입사의례의 성공은 그들 존재가 지닌 신적 속성-지모신, 창조신 등으로 인해 이미 예정된 결과이다.

또한 이들의 '왕후되기'는 남성 배우자와의 결합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구현을 상징하는 통치 활동을 위한 과정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왕후의 지위는 질서 구현자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 왕후는 통치자로서 왕을 보조하는 지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통치 행위를 완성하는 주체로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왕들이 통치 행위를 상징하는 존재에 머무르는 데 반해 왕후들은 실질적인 통치 행위의 주체로 등장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유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출산'을 여성 주체 본인의 사회적 과업의 달성으로 해석한 점이다. 남성 주체를 중심으로 해석할 때 '출산'은 남성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후계자를 생산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질서를 세울 남성 후계자, 즉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일 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저자는 여성의 출산이 여성 본인의 신성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를 낳는 일'로 그 자체가 세계창조 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성 주체 스스로가 입사의례를 거쳐 자신의 신성성을 입증하고 능력을 완성한 후 출산을 통해 질서를 창

조하거나 유지하는 사회적 행위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왕이나 화랑, 고승의 출산은 여성 주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존재 속성으로부터 부여된 사회적 과업의 실현이 된다.

예를 들어 웅녀는 입사의례를 거친 후 신단수 아래서 아이 갖기를 기도하는데 이 때 웅녀의 궁극적 목표는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적 질서를 창조할 존재를 출산하는 것이었다. 또 유화는 새로운 질서의 중심인 주몽을 낳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구질서를 상징하는 금와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도망갈 것을 권고하며 뒤에 주몽에게 직접 오탁종자를 가져다줌으로써 지모신이자 국모신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한다.

두 번째 유형에서 저자는 남녀간의 결합이 에로스적 사랑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새로운 질서의 창조 과정의 일부로 드러나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사통'이나 '과부' 등이 비정상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고 새로운 질서 구현자를 출산하기 위한 결합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남녀간 성적 결합 양상에 대한 남성 중심적 시각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다른 연구자들과 견해를 달리 하면서 연구자들의 남성 중심적 시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대목이 두드러진다. 저자는 비형량을 낳은 도화녀 이야기를 관탈민녀형(官奪民女型) 설화로 보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남성과의 성적 결합에 대한 거부와 승인이 모두 도화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행해졌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적 존재와의 결합이 아니라 비형량의 비범성이 도화녀의 정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화녀가 비형량의 출산으로 자신의 존재를 사회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여기서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가 도화녀 설화를 신지 않고 도미의 처 설화나 설씨녀 설화만을 신고 있다는 사실에 착목하여,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견인된 저자의 의식이 '열(烈)'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두 이야기만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저자들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삼국유사』의 텍

스트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삼국사기』의 남성주의적 시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에서 여성의 사회적 과업은 '국가 경영 및 질서유지'로 구현되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는 진성왕에 대한 해석이 흥미로운데, 진성왕을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왕으로 평가한 기존의 논의가 젠더 의식의 산물임을 논증하였다. 진성왕의 큰오빠인 헌강왕 때 이미 국가의 위기가 징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기의 원인을 진성왕에게 돌린 것이나 주변 정치인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성왕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 등이 남성적 편견의 산물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도 저자는 진성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삼국사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삼국유사』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삼국사기』의 남성주의적 시각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세 번째 유형에서는 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구원하거나 타인을 돕는 여성 주체들과 자신의 희생과 현명한 판단을 통해 타인의 과업 성취를 돕는 여성 주체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유형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역시 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구원을 행하는 여성 주체들에 대한 서술인데 크게 지모신이나 산신, 곡령(穀靈)이나 조령(祖靈), 자연 현상의 주재자(主宰者) 등으로 나타나는 여성들과 보살의 화신으로 나타나 수도자나 도승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여성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에서는 여성주의적 해석이 아니라면 찾아낼 수 없었을 몇몇 여성 주체들을 발굴한 점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비를 관장하는 운제부인(雲帝夫人), 김유신에게 위기를 알려준 나림(奈林), 혈례(穴禮), 골화(骨火)의 세 여신, 동지(東池)와 청지(靑池)의 두 용의 아내, 영취산 산신인 변재천녀(變才天女) 등은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다.

저자는 퍼즐을 맞추듯이 『삼국유사』 텍스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모으고 신화와 종교의 상징 체계를 동원하여 작은 단서로부터 의미를 추출해냄으로써 여성 주체를 발굴했을 뿐 아니라 신화적 맥락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성 신격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산신(山神) 가운데 여성 신격도 존재함을 증명하여 신화 해석의 남성 중심적 시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세 번째 유형에서 주목할 여성 주체는 보살의 현신으로 나타나는 여성 형상들이다. 이들은 남성으로 형상화될 뿐 아니라 현실에서 매우 덕이 높고 도통한 인물로 인정 받는 승려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들을 올바른 깨달음으로 이끄는 주도적 조력자로 나타난다. 노부(老婦)·노구(老軀)·노파(老婆), 혹은 월경혼이 묻은 빨래를 빼는 여인, 한밤중에 수도승을 찾아와 출산을 하고 목욕을 시켜 달라는 여인 등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들 여성 주체들은 도승으로 알려진 남성 주체들의 경직성과 교조적 태도 등을 통렬하게 지적하며 지혜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3. 신화적 해석과 여성주의적 해석 사이의 갈등과 공조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신화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다. 신화적 존재나 신화적 사건이 직접 기술되기도 하고 그 흔적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신화적인 맥락이 대체로 소거된 경우라도 그 바탕에 신화적인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신화적 담론이기에 『삼국유사』에서 여성 주체를 발견하는 일은 여성주의적 해석인 동시에 신화적 해석일 수밖에 없다.

저자들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세 유형의 여성 인물에 대한 분석에서, 그들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신화적 상징 체계와 해석의 의미망 안에서 포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유화가 았았던 바위나 수로부인이 받았던 꽃, 선도성모가 찾아준 때, 세오녀가 짠 비단 등이 모두 신화적 상징 체계 안에서 우주의 중심, 생명력과 풍요, 곡령이자 조령, 달의 상징 등으로 해석되었다.

신화적 상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신화적 서사의 전통 전체와 종교,

의례 등의 민속 체계 전반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의 서사 단위 안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할 경우 오히려 해석자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그 안에는 신화적 전통의 오랜 역사와 그 역사를 통해 आरो새겨진 흔적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영 이야기의 입사의례적 상징을 해석하기 위해 유희와 웅녀의 이야기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고 허황옥의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 제주도 삼성 신화를 동원하였다. 또한 세오녀가 짠 비단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를 풀어내기 위해 달의 신화적 상징성에 대한 엘리아데의 해석과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가배 길쌈 풍속 등이 함께 검토되었고 수로부인의 꽃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경북 경산의 '한장군 놀이'와 '바리공주'·'이공본풀이'·'세경본풀이' 등의 무가, 신혼의 상징성 등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신화적 담론은 고정불변의 체계를 유지하는 탈역사적 담론이 아니다. 오히려 신화적 담론은 신화적 세계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왔는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탈신성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세 유형의 여성 주체에 대한 해석에는 이러한 탈신성화의 양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면, 미분화된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는 입사의례의 과정이 문화에게 와서는 꿈이 되었고, 보도부인에 이르러서는 종교적 귀의가 되었다. 또 입사의례를 거쳐 천신적 존재와 결합했던 알영이나 허황옥과 달리 문화나 선화공주는 비범한 인물과 결합하였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입사의례를 거쳐 천신적 존재와 결합한 후 새로운 질서의 창조자를 낳는 '출산'의 상징적 의미-그리하여 우주 창조 활동의 한 부분이 되는-가 '태몽'을 통해 천명을 확인한 후 뛰어난 화랑이나 비범한 승려들을 낳는 것으로 바뀌는 양상을 통해 탈신성화의 과정이 암시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에서도 도움을 주는 여성의 능력이 해와 달의 빛을 되돌리거나 비를 내리게 하는 등의 신적인 능력에서, 인간으로 현신하여 깨달음

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보살의 능력으로, 그리고 다시 기도와 희생이라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탈신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 주체의 도움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역시 우주적인 질서에서 비범한 인물의 성취로, 다시 평범한 인간에게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신화적 해석에 기반함으로써 『삼국유사』에서 여성 주체를 발견하는 이들의 논의는 충분한 해석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신화적 해석을 통해 남성적 시선에 포착되기 전의, 남성적 관념이나 질서에 의해 굴절되기 전의 여성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적 해석은 때로 여성의 속성을 본질화함으로써 여성주의적 해석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다섯 나찰녀(羅刹女)는 번개와 비를 통해 인간의 농사를 방해하는 악귀로 나온다. 이들은 오계(五戒)를 받은 후 이전의 악행을 멈추고 '교화'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여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신성(神性)은 언제나 양가성을 띄는데 번개와 비 등 자연적 질서를 좌우하는 힘은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신성의 양가성이 부정적 속성만 남는 것으로 탈신성화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속성이 여성의 이미지로 투사될 때 신화적 해석은 여성주의적 해석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나찰녀의 이미지에는 남성적 질서 속에서 오래도록 여성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투사되었던 '마녀', 혹은 '악귀'의 영상이 서려 있다. 따라서 나찰녀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나찰녀에 투영된 여성적 속성의 부정적 이미지인지도 모른다. 또 이것은 신화적 담론의 탈신성화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다. 비를 관장하는 같은 능력이 운제부인에게서는 가뭄을 해갈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육면이나 제상의 아내 이야기에서는 신화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 사이의 긴장 관계가 신화적 담론의 탈신성화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쉽게 공조 관계로 연결되지 못한다. 제상의 아내나 육면의 경우 두 여성 주

체의 행위 결과는 존재의 변화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서사 전개를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두 여성 주체를 존재론적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는 남성적 질서이다. 특히 제상의 아내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으로, 남성적 질서로부터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는, 소외되고 배제된 여성 주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는 신화적 해석의 층위와 여성주의적 해석의 층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신화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화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적 지평간의 모순과 충돌 양상이 쉽게 발견된다. 유화 이야기에서 해모수와 금와는 여성 주체인 유화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상대로 유화를 선택한다. 또한 해모수는 유화를 속여서 사통한 후 그녀를 유기한 채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금와는 처음 그녀를 보자마자 방에 가들 뿐 아니라 그녀가 낳은 아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 존재의 속성과 행위는 분명 신화적 해석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는 여성주의적 해석을 기다리는 균열도 존재한다.

신화적 해석과 여성주의적 해석 사이의 긴장은 『삼국유사』가 구전과 여러 단계의 기록을 거치는 동안 남성적 시선에 의해 굴절된 것과 연관이 있다. 남성적 시선에 의한 굴절은 곧 여성주의적 비평의 두 번째 과제인, 여성 주체를 타자화하는 헤게모니적 과정에 대한 폭로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여성주의적 비평의 첫 번째 과제가 여성 주체의 발견에 있다면 『삼국유사와 여성』은 이 첫 번째 과제를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삼국유사』에서 발견된 여성 주체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삼국유사』의 여성 주체들은 어떤 굴절도 없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가?

4. 『삼국유사』의 여성 주체들은 ‘말할 수 있는가’

가야트리 스피박은 ‘하위 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하위 주체의 목소리가 본질적으로 지배 담론을 재각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는, 장악할 수 없는 하위 주체는 계속해서 타자의 담론을 통해 재현될 수밖에 없으며, 타자의 담론을 통해 재현되는 것은 결코 하위 주체 스스로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삼국유사』의 여성 주체들 역시 구전과 기록의 과정을 거치면서 타자의 담론으로 재현되기를 반복해왔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여성 주체들 역시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실패한 여성으로 분류된 ‘사금갑(射琴匣)’의 궁주(宮主)는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실패’로 규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궁주의, 왕 아닌 남자와의 성적 결합이 초래한 죽음이 궁주에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누가 말하는 것인가. 여성 주체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도 권력도 얻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왕을 구심으로 하는 남성적 질서에 반(反)하는 성적 욕망의 실현이 죽음을 초래하는 현실 자체일 수 있는 것이다.

존재의 변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 신도징의 아내와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김현감호(金現感虎)’의 호랑이 처녀를 원텍스트에 실려 있는 대로 나란히 놓고 보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일연은 신도징의 아내가 호랑이로 돌아간 것을 들어 사람을 배반하였다고 하고, 김현의 아내가 스스로를 희생하여 김현을 구하고 그의 지위가 올라가게 한 것을 두고 신도징의 아내와 대조된다 하였다.

그러나 여성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의 변화나 희생의 고귀함보다, 사람에게 대한 배반이나 사람을 위한 희생보다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 신도징의 아내는 남편이 임기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가려 하자 두 자식을 둔 채

집 안에 걸려 있던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산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았건만 신도징은 아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내에게 그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남성적 질서 내로 편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신도징의 아내는 자식까지 내버려 둔 채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자신이 처음 떠나왔던 자신의 세계, 자연적 질서의 공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반면 '김현감호'의 호랑이 처녀는 자신의 오빠들과 자기 자신의 존재 속성을 모두 부정하고 급기야 스스로를 희생하여 남편이었던 김현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준다. 여성이 자기 가족의 계보와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며 오로지 남편을 위해 헌신한다는 설정은 남성 주체의 목소리에 의해 굴절된 혐의가 짙다. 남성 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김현감호'에 등장하는 호랑이 처녀의 희생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성 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남성적 질서에의 포섭에 다름 아니다.

안길의 처나 손순의 아내도 마찬가지다. 이 글에서 두 사람은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남편을 도운 여성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현명한 판단은 아무리 긍정적인 결과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더라도 '남성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순응'의 측면이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안길의 처는 신분 상승을 이루었고 손순의 아내는 아들을 잃는 대신 상을 받았지만, 안길의 처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의 부탁으로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고 손순의 아내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식을 죽여야겠다는 남편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쯤 되면 여성적 주체를 발견하는 일 못지 않게 여성의 목소리를 사장시키는 헤게모니적 전략을 파헤치는 일이 중요해진다. 남성적 질서와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시키는 중요한 과제가 남은 것이다.

근대 이전의 텍스트에 대한 여성주의 비평이 조선시대 이후의 여성 담론-여성이 직접 말하는-에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여성 주체들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한 작업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던 700여 년에 가까운 공백기가 이제 조금씩 매

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삼국유사』는 한국문학사에서 서사문학의 출발점으로 인식된다. 『삼국유사』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은 한국 서사문학의 역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시키는 장대한 사업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 필자 : 연세대 강사

